

# 우리집 장판은 안전?

## PVC 바닥재 6개 제품 안전기준 미흡... 유해물질 노출 우려

### 녹색소비자연대 27개 제품 조사

공동주택의 바닥재가 층간소음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이어 주택이나 사무실 바닥에 쓰이는 PVC 바닥재 일부 제품도 내구성과 표면코팅에서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코팅이 얇은 6개 제품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9일 국내 시판 중인 PVC 바닥재 27개 제품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대상은 비닐장판 4종, 비닐바닥시트 11종, 비닐바닥타일 12종이다. 비닐장판은 2mm 두께로 가격이 저렴해 주로 창고 등 상업시설에 쓰이며, 비닐바닥시트는 부직포·유리섬유 등 다른 재질을 추가한 제품으로 주로 가정용으로 쓰인다.

비닐바닥타일은 염화비닐가스제, 돌가루 등을 첨가해 가공한 사각형 플라스틱 타일로, 가정, 사무실, 어린이집 등에 두루 쓰인다.

비닐장판 중 KCC의 숲팻트, 한화 L&C 황토팻트의 인열 강도(찢어짐 저항)가 공산품 안전기준인 1cm당 196N에 미달했다.

비닐바닥시트 중에서는 진양화학의 '참숯그린·마스터그린', KCC의 숲 황토순, 한화 L&C의 참숯·명가프리미엄·소리지움 등 6개 제품의 평균표면 코팅 두께가 모두 13μm 이하로 나타나 안전기준(15μm)에 미달했다.

코팅두께가 얇은 바닥재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스제가 밖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연대는 설명했다.

프탈레이트 가스제 함유량을 직접 측정한 결과에서는 조사대

### ■ '지을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위반 제품

인열강도 미달	KCC '숲팻트', 한화 L&C '황토팻트'
표면코팅 두께 미달	진양화학 '참숯그린·마스터그린', KCC '숲 황토순', 한화 L&C '참숯·명가프리미엄·소리지움'

상 전 제품 모두 검출량이 없거나 기준치를 만족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비닐장판 제품은 진양화학의 황토팻트(3.3㎡당 1만4204원)였다.

비닐바닥시트의 경우 1.8mm 두께 제품 중에는 KCC의 숲그린(2만1264원), LG하우시스 의뉴청택(2만4870원), 2.2mm 두께의 비닐바닥시트 중에는 LG하우시스의 자연에(3만9597원), KCC의 숲 황토정(4만6517원)이 기준에 적합했다.

4.5mm 두께의 비닐바닥시트 중에는 LG하우시스 소리잠(7만7387원)이 추천됐다.

비닐바닥타일은 비온돌용 제품의 경우 녹수의 프로마스타, 온돌 겸용 제품은 LG하우시스의 보타너우드의 품질이 우수했다.

소비자연대는 "비온돌용 제품을 온돌 바닥에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 가스제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용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YWCA소비자상담실 관계자들이 1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서 대학생들에게 소비자 피해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내용의 대한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광주YWCA소비자상담실 제공>

## '대학생 여러분~ 주의하세요'

### 광주YWCA, 텔레마케팅·설문조사 미끼상품판매 등 '피해예방 캠페인'

광주YWCA소비자상담실(회장 최양남)은 1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서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대학생 여러분~ 주의하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정기간행물 구독, 설문조사와 견본품을 미끼로 한 상품 판매, 모바일 커머스 소액결제 피해 등에 대한 예방과 피해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는 취지로 매년 시행됐다.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텔레마케팅과 설문조사,

방문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하고, 충분한 자문을 거친 뒤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때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1372)에 상담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은 지역 대학과 함께 대학생 소비자 피해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한 피켓을 전시하고 리플릿과 손난로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아파트 층간소음, 거버넌스 구성해 해결해야

### 국회서 토론회... 기술혁신·법률제정 마련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민주당 문병호 국회의원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기술 중심으로 논의됐던 층간소음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한창 동국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민간(인문사회과학자들과 시민단체 및 입주자)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면 층간소음 방지 한 단계 더 진행될 수 있고 아울러 기술혁신도 이뤄져 일석 이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

써 현실적인 상황을 잘 반영해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통합적 법률제정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아파트 주민의 골칫거리인 층간소음과 같은 민생현안을 다각도로 토론한 후 관련된 법률제정을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및 도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이원적 방법, 주민간 소통체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홍식 호남대 교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대응된 법체계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2007년 이전 완공된 아파트 80~90%가 층간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아동용 의류·완구서 발암물질 다량 검출... 18개 제품 리콜 명령

어린이가 사용하는 의류·완구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 1278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아동용 섬유 등 18개 제품에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 사용돼 리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아동용 의류 8개, 완구 6개, 전기 용접기 2개, 직류전원장치·유아용캐리어 1개씩이다.

유명 브랜드인 베네통(중국산) 아동 의류에서는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염료가 사용됐고, 아놀드파마 주니어(중국산)에서는 중금속 물질인 니켈이 기준치의 2.6~3.4배 초과 검출됐다. SFTT(중국산) 의류에서는 중금속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1.7~6배, 프탈레이트계 가스제는 기준치의 227배나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스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다량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 인체기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윈키즈

(인도네시아산), 톱키드(미얀마산), BLUECP·프렌치캐트·JCB(이상 중국산) 등에서도 납·니켈·프탈레이트계 가스제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완구의 경우 국내 인토토가 만든 돗포어퍼니처백과 중국 조앤의 팀버게임에서 납이 기준치의 124배나 나왔고 국내 우전토이가 제작한 큐플러블력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스제가 기준치의 157배 초과 검출됐다. 이밖에 프레델의 아기띠(중국산)에서도 기준치의 116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스제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용접기와 직류전원장치는 감전 위험이 높아 리콜 조치됐다.

리콜 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의 경우 수리·교환해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mkorea.kr)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금매"

### 1층상가 - 25평

- ▶ 정문코너, 편의점 임대 중 (보3천만원에 월 125만원)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7,500만원

### 13층 - 오피스텔

- ▶ 53평, 주거겸 사무실
- ▶ 양동/하천쪽, 전체 올수리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5,500만원

### 10층 - 오피스텔

- ▶ 29평, 주거겸 사무실
- ▶ 하천쪽, 전망좋은
- ▶ 시세 1억원 정도
- ▶ 급매 6,500만원

회사 사정상 매매함  
H.010-4667-9300

## 경매

- ▶ 투자 하실 분! 1억원 이상
- ▶ 비법 배우실 분! 1,200만원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엔피엘/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H.010-3605-5000